

靑 사드 조사 김관진 넘어 황교안까지 가나

與 ‘은폐 보고’ 청문회 추진... 野반발·찬성 여론 변수 윤병세 등 박근혜 정부 NSC 멤버 전체 대상 될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에 대한 청와대의 진상조사가 전광석화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당까지 청문회 추진 의사를 밝혀 사드 배치 문제가 문재인 정부 집권 초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할 조짐이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지 하루만인 지난 31일 국방부가 고의로 보고를 누락했다는 결론을 내고 곧바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한 장관과 달리 지난날 21일 교체된 김 전 실장은 국방부의 보고 누락과 직접 관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청와대 조사 대상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조사가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라인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진상조사 자체는 국방부 보고 누락 문제가 원인이 됐지만, 문 대통령이 지속해서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국방부 보고누락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국가안보실 사드 태스크포스(TF) 구성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지난날 22일 국회를 방문,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안보실의 TF를 구성해서 전체적인 경위를 한번 파악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만약 청와대가 사드 진상조사의 초점을 국방부의 보고 누락에서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과정으로까지 확대할 경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멤버 전체가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나아가 전격적인 사드 반입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었던 황교안 전 총리도 조사대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가 1일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파문을 ‘은폐보고’로 지칭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심재권 위원장 등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책회의를 한 뒤 성명을 발표하고 “국방부가 지난 25~26일 업무 보고에서 의도적으로 사드와 관련한 사실을 은폐보고한 것이 밝혀졌다”며 “명백히 중대한 하극상이요 국기문란”이라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또 “민주당 사드대책특위는 그간 졸속 사드 배치가 재반 국내법 절차를 위반한 불법적 조치로서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국회 청문회를 열어 사드 배치 결정 경위, 불법적인 부지 공여, 탈법적으로 회피하는 환경영향평가, 비윤리적 이면합의 의혹 등을 밝힐 것을 촉구해왔다”며 “거듭 졸속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성명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개최시 중언에 대해 “일차적으로는 이 사안과 직접적 연관을 가진 김 전 실장과 한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말씀해주시길 분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여론의 행보에 대해 야당이 ‘안보 자해행위’라고 반발하고 있고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한 찬성 여론이 적지 않아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은폐 보고’ 청문회 촉구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 심재권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청문관에서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추가배치 보고누락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드 은폐 보고’ 청문회 촉구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 심재권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청문관에서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추가배치 보고누락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광주공약 점검 기획단’ 구성하자”

광주시의회 임시회서 전진숙 의원 제안 심철의 의원 “지역 현안문제 해결 우선”

광주시의회가 1일 가칭 ‘대통령 광주공약 점검 기획단’ 구성을 제안하고, 남은 임기 동안 지역 현안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 전진숙(북구 4) 의원은 이날 열린 광주시의회 제259회 임시회에서 교섭단체 대표(더불어민주당) 연설자로 나서 가칭 ‘대통령 광주공약 점검 기획단’ 구성을 광주시에 제안했다.

전 의원은 “기획단은 문재인 정부의 광주공약을 지속적으로 점검, 추진하도록 하

고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기구”라고 설명했다. 기획단에는 시와 시의회,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한다.

또 공약에서 빠진 스마트 제조혁신단지 조성, 환경산업 육성 기반구축, 경전선 광주~순천 전철화 사업 등의 추가 반영도 기획단 과제에 삼아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전 의원은 광주시 현안으로 ▲일자리 지키기 대책 촉구 ▲성(性)평등 인사정책 촉구 ▲광주신세계백화점의 복합쇼핑몰사

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 ▲남북교류사업 적극 추진 ▲도심팽창 억제와 지구간 균형 발전 추진 등을 제안했다.

국회의당 대표 연설에는 심철의(서구 1) 의원이 나서 “7대 의회 남은 임기동안 지역 현안문제 해결과 민생·경제 분야에 우선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광주시와 의회의 기본을 바로세우고, 광주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과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주시 공공기관장 공백사태 장기화, 광주도시철도 2호선 논란, 광주 송정역 주변환경 개선, 아시아문화중심도

시 및 전당 활성화, 광주형 일자리, 2019 세계수업연수권대회 성공 개최 및 예산절감, 일몰제 대상 공민 조성 문제 등을 당면 해결 과제로 꼽았다.

한편, 광주시의회 임택(민중·동구 1) 의원은 이날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시 공무원노조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가입과 관련해 지난해 시 감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요구한 11명의 공직자에 대해 윤장현 시장이 징계 철회 결단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시 감사위는 지난해 4월27일 공무원법상 금지된 단체행동을 이유로 시 노조 간부 14명 중 절반인 7명에 대해 중징계, 4명은 경징계 의결한 뒤 시 징계위로 징계결정권을 넘겼다. 또 이를 도운 각 구청의 노조간부 10명에 대해서도 추가 징계를 요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靑문화중심도시 발전 전략 세미나

오늘靑문화전당서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발전 전략과 중국·일본 등 아시아국가의 문화 관련 법·제도를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아시아문화원, 한국문화사학회 등이 주최하고 조선대 법학연구원이 주관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 기반 학제간 융·복합 국제세미나가 2일 오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컨퍼런스홀에서 열린다.

행사는 ‘한·중·일 문화법’, ‘문화중심도시 발전방향’, ‘생활예술과 대중가요’ 등 주요 테마를 3개 분야로 나뉘는 토론회로 진행된다.

한중일 문화법 세션(오전 9시30분~12시10분)에서는 김준환 조선대 교수의 사회로, ‘중국문화산업정책과 법제

연구’, ‘중국소수민족전통문화의 법적 보호’ 등을 살펴본다.

이어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1세션 중 ‘문화중심도시의 발전 방향1’에서는 신혜석 숙명여대 교수, 이병민 건국대 교수가 나서 각각 ‘문화예술교류 플랫폼으로서의 예술센터 활용사례’, ‘문화중심도시의 성공조건’을 발제할 예정이다.

‘문화중심도시의 발전 방향2’에서는 한국문화경제학회 소속 심상민, 윤정국 씨 등이 나서 아시아문화콘텐츠 전략을 이야기한다.

2세션에서는 강운주 경희사이버대 교수, 박근영 연세대 교수가 ‘생활예술과 대중가요’에 대해, 이근영 세명대 교수, 김혁준 가이대 교수 등이 문화예술법에 대해 발표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5·18 발포 묵인·방조 등 美 자료 공개를”

광주시의회 요구

광주시의회는 1일 “5·18민주화운동 당시 미국이 계엄군의 집단발포를 묵인·방조한 관련 자료 공개 등 실제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대한민국 정부도 미국중앙정보국(CIA) 등이 보유한 5·18 관련 자료와 문서의 전면 공개를 미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정부 차원에서도 5·18 당

시 학살을 지시하고 명령했던 지휘계통의 확인과 발포책임자 규명, 헬기사격 진상 등을 이른 시일 내에 밝혀 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미국 언론인 틸서록이 공개한 문서 등을 살펴볼 때 미국은 5·18 민주화운동이 미국의 안보와 이익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 신군부의 만행과 광주의 참상을 묵인하고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스마트 전력량계 제조 유니시스템·위트에너지

51억 들여 목포 대양산단에 공장 준공

60여명 일자리 창출

전남도, 목포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유니시스템(주)와 위트에너지가 1일 대양산단에 스마트 전력량계를 제조하는 목포공장을 준공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박해린 유니시스템 회장, 박홍목 목포시장, 정찬국 전라남도 일자리정책실장, 조성오 목포시의장, 강성희 전라남도의원, 김진형 광주 전남중소기업청장, 박권식 한전 상생협력본부장, 여성구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장, 최창호 대양산단(주) 대표이사, 계열사 및 고객사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준공된 목포공장은 대양산단 4997㎡ 부지에 51억원을 투자해 스마트 전력량계를 생산하는 설비를 갖췄다. 생산라인이 본격 가동되면 60여 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갖게 돼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실현에 기여할 전망이다. /윤철석기자chadol@kwangju.co.kr

유니시스템과 위트에너지는 계열사 관계로 디지털 전력량계와 원격 검침 시스템 등을 생산하는 에너지 분야 선도 기업으로, 목포공장에서는 스마트 전력량계를 본격 생산한다.

생산된 스마트 전력량계는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전력 사용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 검침 정보의 조작이나 전기 도둑 등을 방지할 수 있는 획기적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생산 제품의 절반은 한전에 납품되고 나머지는 국내 민간기업과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태국 등 해외 수출용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광주지사 직영점 오픈

“서울 본사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무료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113년 전통의 덴마크 오티콘보청기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